

광주FC 이순민 ‘베스트 11’ 정호연 ‘영플레이어’

2023 K리그 대상 시상식

이 “꿈이 현실이 돼 기쁘다”
정 “빛나게 해준 동료 감사”

전남 발디비아 K리그2 MVP

창단 후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로 향하며 돌풍을 일으킨 광주FC 중원의 핵심 이순민과 정호연이 맹활약을 인정받았다. 이순민은 베스트 11 미드필더, 정호연은 영플레이어의 주인공이 되며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2023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K리그1과 K리그2 MVP와 감독상, 영플레이어, 베스트 11, 득점상, 도움상을 비롯해 클럽상과 특별상 등의 주인공이 공개됐다.

올 시즌 3위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 승격 팀 돌풍을 일으킨 광주는 두 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순민이 베스트 11 미드필더에 선정됐다. 이순민은 감독 및 주장 투표 각각 5표와 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73표를 득표하며 총점 25.20으로 중앙 미드필더 부문에 뽑혔다.

이순민은 지난 시즌 광주의 우승과 함께 승격을 이끌며 K리그2 베스트 11 미드필더에 선정된 데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순민은 올 시즌 35경기에서 나서 1득점과 2도움을 생산했고, 라운드 베스트 11에도 두 차례 선정됐다.

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선택으로 생애 첫 국가대표에도 발탁돼 데뷔전을 치른 바 있다.

이순민은 지난 8월 발표된 유럽 원정 친선경기 명단에 발탁돼 웨일스를 상대로 첫 A매치를 소화했다. 이어 10월 친선경기과 11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



광주FC 미드필더 이순민이 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2023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1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을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차 예선에도 소집됐다.

이순민은 시상대에 올라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현재를 마주하며 기쁨과 감사함이 드는 동시에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 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치가 예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나의 꿈이 더 이상 혼자만의 꿈이 아니다. 그 무게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부딪혀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항상 큰 울타리가 되어 주는 광주FC 강기정 구단주와 노동일 대표이사, 임근훈 경영본부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과 팬들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항상 저를 위해주고 최고라고 얘기해 주는 주혜에게도 너무 고맙다”고 덧붙였다.

정호연은 영플레이어에 선정됐다. 정호연은 감독 투표에서 2표에 그쳤으나 주장과 미디어 투표에서 가장 많은 6표와 43표를 득표하며 총점 34.96으로 황재원(대구·총점 32.17)을 제쳤다. 지난해 K리그2 영플레이어에 오른 엄지성에 이어 광주의 2년 연속 수상자 배출이다.

올 시즌 최고의 젊은 피로 인정받은 정호연은 수원삼성과의 개막전에서 아사니의 선제골 겸 결승골을 도우며 광주의 1부 리그 연착륙 발판을 마련했다. 또 지난 2~3월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정호연은 광주의 허리를 탄탄히 구축하며 34경기에서 출장, 2득점과 4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1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다.



광주FC 미드필더 정호연이 4일 ‘2023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K리그1 영플레이어를 수상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특히 정호연이 공격포인트를 올린 6경기에서 5승 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그의 공격포인트는 곧 승점이라는 공식도 만들어냈다.

정호연은 시즌 내내 기복 없는 경기력으로 34경기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K리그1에서도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광주는 정호연이 공격포인트를 올린 6경기에서 5승 1무를 기록하며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정호연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이정호 감독에 감사하다. 코칭스태프와 지원스태프, 구단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감사하다”며 “같이 경기를 뛰면서 팀이 더 빛날 수 있게, 선수들이 빛날 수 있게 해준 동료들 정말 감사하다”

고 소감을 밝혔다.

감독상에 도전한 ‘효버지’ 이정호 감독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이 감독은 미디어 투표에서 59표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감독 및 주장 투표에서 각각 1표에 그치며 총점 25.52로 홍명보 감독에 수상을 양보했다. 이 감독은 김기동 포항 감독과 수원FC 주장인 이영재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편 올해 K리그2 무대를 정복한 전남 드래곤즈의 발디비아는 MVP와 베스트 11 미드필더, 최다 도움상을 휩쓸며 트로피 3개를 수신했다. 발디비아는 MVP 투표에서 감독 6표, 주장 10표, 미디어 52표의 압도적 지지율로 총점 57.52를 기록해 수상자가 됐다.

한규민 기자

페퍼저축은행, 오늘 흥국생명과 재격돌

지난 1일 광주서 폴세트 접전 패

5연패 부진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이 4일 만에 재격돌하는 흥국생명을 상대로 연패 탈출을 노린다. 지난 1일 안방에서 폴세트 접전 끝 패배를 당한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원정길에서 세트 박사랑을 앞세워 설욕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5일 오후 7시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와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3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처음으로 치르는 연속 경기다.

페퍼저축은행은 2라운드까지 2승 10패(승점 6)로 최하위인 7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지난 1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홈경기에서 폴세트 접전 끝에 2-3으로 석패하며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선보였다.

특히 백업 세트 박사랑의 활약이 돋보였다. 조트린지 감독은 이날 경기 후 “박사랑이 벤치에서 대기하다 출전해 완벽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다. 만족스럽다”며 “운동 신경이 좋고 토스 움직임도 뛰어난 선수”라고 칭찬했다.

박사랑은 이날 경기를 벤치에서 출발했지만 주전 센터 이고은의 극심한 컨디션 난조에 1세트 중반 교체 투입돼 경기를 끝까지 소화했다. 디그 12개(성공률 2.40)와 세트 52개(성공률 10.40)를 성공시키며 값진 승점을 쌓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박사랑은 어렵게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사랑은 이날 경기 후 “공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토스가 잘 올라갔다. 야스민이나(박)정아, (이)한비, (하)혜진 언니가 잘 때려 주기도 했다”고 복기했다.

이어 “토스 연습도 많이 하고 어떻게 공을 올릴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다. 코칭스태프에 조언도 자주 구하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도 약처럼 했다”며 “교체로 들어가면서 분위기를 잘 살리자고 생각했는데 잘 이뤄져서 다행이다. 다음 경기는 꼭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규민 기자

‘전국체전 첫 7관왕’ 광주체고 문건영, 체조 국가대표 선발

국대 선발전서 개인종합 3위 고교 선수로 태극마크 유망 내년 4월 올림픽 선발전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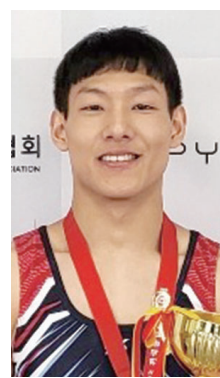
전국체전 사상 첫 7관왕의 위업을 이룬 ‘한국 체조 유망주’ 문건영(광주체고 2·사진)이 생애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문건영은 지난 2일 강원 양구문화체육회관에서 끝난 2023 기계체조 종합선수권대회 겸 2024년도 국가대표선발전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

기계체조 6개 종목인 개인 예선에서 마루 13.500점, 안마 13.067점, 링 12.867점, 도마 14.033점, 평행봉 14.167점, 철봉 11.767점을 기록했다.

합산 결과 79.401점을 획득한 문건영은 1위 이준호(전북도청·80.900점)와 2위 허웅(제천시청·80.233점)에 이어 개인종합 3위를 차지, 고교 선수로는 유일하게 자력으로 태극마크를 거머쥐었다.

2024년 국가대표(14명)는 이번 대회 개인종합 예선 1~5위의 성적 순으로 선발



으로 한다.

문건영은 종목별 결승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추가했다.

마루에서는 14.367점을 받아 내로라하는 선배 선수들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평행봉(13.300점)과 안마(12.933점)에서는 각각 동메달을 따냈다.

문건영을 지도한 오상봉 광주체고 체조 감독은 “고교생인 문건영이 개인 예선 마지막 종목인 철봉에서 기술을 펼치다가 낙하해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실수가 있었음에도 개인종합 3위로 입상하는 건 대단한 것”이라며 “향후 대표팀에서 체계적인

하고 나머지 9명은 추천으로 뽑는다.

추천은 기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가 부상 또는 성적 하락 등의 변수가 생겼을 때 국제대회 입상선수를 대상으로 한다.

관리를 하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 가능한 선수고 현 국가대표 선수와 견줄만한 자질과 재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된 문건영은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년 4월 파리올림픽 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하면 개인전 출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오는 17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할 예정인 문건영은 “처음 성인 국가대표가 돼 ‘이제 시작이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진해서 국제대회 메달을 목에 걸겠다”며 “내년 파리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체력운동을 통해 힘도 더 키우겠다. 스타트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기술 난이도를 E난도로 높여 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건영은 지난 10월 13~19일 전남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남자18세이하부 개인종합, 마루, 안마, 링, 도마, 평행봉, 철봉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전국체전 104년 역사상 첫 7관왕을 달성했다.

최동환 기자